

# 울산출신 태권도선수 6명 태극마크



-80kg급 조유진  
<국군체육부대>



-87kg급 신영래  
<한국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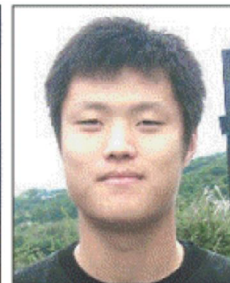
-53kg급 김유진  
<경희대>



-68kg급 이주성  
<동아대>



-80kg급 양근모  
<진천군청>



+87kg급 정기성  
<경희대>

울산출신의 태권도 선수 6명이 국가 대표로 선발됐다.

30일 국기원에서 열린 2013 태권도 국가대표 평가전 남자부 -80kg에 출전한 국군체육부대의 조유진은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체대의 신영래도 -87kg급에서, 경희대의 김유진도 여자부 -53kg급에서 국가대표로 뽑혀 오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2013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었다.

또 동아대의 이주성은 남자부 -68kg

급, 진천군청의 양근모는 남자부 -80kg급, 경희대의 정기성은 +87kg급에서 각각 국가대표 영광을 얻어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 천진에서 펼쳐질 제 6회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한다.

이들 6명의 선수는 모두 울산출신의

태권도 선수들이다.

김유진은 지난 제91회·제93회 전국체육대회 대학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주성·정기성 역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이주성은 제93회 전국체전 대학부에서도 금메달을 따낸 울산태권도 간판스타다.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김종관 회장은 “울산 출신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울산태권도를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